처음이 아니면 참이 아니다

(이사야 30:1~33)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2.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4.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5.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처음이 아니면 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처음이 아니면 참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8장에서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술과 독주에 취함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장에서는 술과 독주로 비유된 죄악이 단순히 알코올에 취함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9절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취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쓴 이사야를 흉내 내서 우리나라 술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소주 업계의 양대 산맥이라면 본래 진로였던 '참이슬'과 롯데의 '처음처럼'을 들 수 있습니다. 1위인 '참이슬'을 향하여 2위인 '처음처럼'의 공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처럼'은 알코올 도수를 16.5도의 순한 처음처럼, 17도의 부드러운 처음처럼, 20도의 처음처럼 진한'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참이슬'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은 진로 측에서도 반격을 합니다. 희석식 소주의 알코올 마지노선은 20도라고 반박하면서 그 이하의 술은 소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도 '15.5도의 즐겨찾기'라는 이름의 새 소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업계가 싸움이 팽팽합니다.

대부분의 업소나 식당에서는 참이슬과 처음처럼 소주를 같이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소주를 주문하면 '참이슬 드릴까요? 처음처럼 드릴까요?'라고 되묻습니다.
소주에서는 참이냐 처음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과 처음을 신앙으로 가져와보면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처음이 아니면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백이나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처음 대상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관계한다면 반드시 처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관계의 대상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 믿음은 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점점 나쁜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마음은 자녀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셀 수도 없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의한 모든 내용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이 교회문제에 매여 있으면서 1년 내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나온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첫 번째 대상이 되셔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코 소주처럼 참과 처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앗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북 왕국을 멸망시킨 뒤에 죽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앗수르의 압박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앗수르의 멍에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유다는 이 틈을 타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애굽도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는 앗수르의 세력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남 왕국 유다가 필요했습니다. 유다마저 굴복하고 나면 이제 앗수르와 직접 대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조처였습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해본다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고 못마땅한 일본과도 손을 잡을 것입니다. 5,500만 남한 국민이 이것이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러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히스기야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를 전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국제정세 대로라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통나라가 아닌 선민의 나라인 유다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선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이런 욕을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선민 되기가 어렵습니다.
북 왕국도 망하고 이제 남은 선민은 남 왕국 유다뿐입니다. 이 선민들이 살아남겠다고 앗수르의 압박감을 마주 대항하기 위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척 못 마땅하게 여기시면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까지 저주의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애굽과의 동맹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저주스러운 악담이 계속 됩니다. 남 왕국 유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악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 것일까요?
1절에서 나온 '패역한 자식'은 히브리어로 '바님 소레림(bā-nîm sō-wr-rîm, בָּנִים סֹרְרִי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의 반역하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거역하는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패역한 자녀들을 신명기 21장에서 보면 온 동네에 알려서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선민들 가운데서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은 언뜻 보기에 율법을 어겼거나 십계명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마지막에 보면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본래 죄가 있고 이에 보태진 다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죄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공간이 생겼거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많은 대상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처음으로 관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따로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항상 처음 관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처음자리에 모시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해진 죄는 무엇일까요? 마음 처음자리에 어떤 대상을 둔다는 것은 곧 마음이 밀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밀착되면 그 대상으로 인한 느낌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녀문제로 걱정하는 교수님은 마음의 처음자리에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한 느낌이 교수님 마음 전체의 정서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관계하는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 느낌이 작용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경우에는 앗수르가 그러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앗수르가 마음의 처음자리에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처음자리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좋아해서 붙잡으려하는 것과 싫어해서 없어져야만 한다고 여겨서 밀어내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앗수르를 처음자리에 들여놓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싫어하는 앗수르를 마음의 처음자리에 담자 공포가 밀려오고 말도 못할 염려가 엄습합니다. 이 두려움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 전체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제 이들은 공포에 지배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처하게 됩니다. 모든 판단과 생각과 계획과 추진이 공포를 느끼는 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해지는 모든 일이 더해진 죄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선민들의 본래의 죄는 앗수르를 마음의 처음자리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진 죄는 앗수르가 주는 공포를 받아들인 채로 행한 애굽과의 동맹이었고 그 외의 모든 후속조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처음자리에 모셨더라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일들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죄악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모든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났기에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과 남 유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앗수르를 앞에 두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도 앗수르를 무서워하였고, 남 왕국은 이미 북 왕국이 앗수르에 의해서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중국이 세계의 비난에도 불과하고 북한을 몰살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긴장감과 두려움은 엄청날 것입니다.

선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앗수르를 처음자리에 들여놓은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민의 싸움은 칼과 창을 들고 앗수르를 맞서 싸우거나,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방어전선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앗수르를 처음자리에 들여놓은 마음을 번제단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싸움이 우선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처음자리에 모시는 싸움을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의 선민들은 이 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행한 대

표적인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는 성전에서 기도하여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을 전멸시키는 역사를 경험하지만 여호사밧의 왕의 이야기는 훨씬 감동적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모래알 같이 많은 적군들을 앞에 두고 성전 앞에 모여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적군을 향할 때에 당연히 군대를 앞세워야 하는데 성가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가대가 군대 앞서서 나간 것은 마음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상번제는 제사장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각자가 상번제의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중에 아침저녁으로 어린양이 번제단에서 타 죽는 것을 봅니다. 번제단에서 죽는 양은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에게 마음의 처음자리를 내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난 느낌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온 백성이 계속 고백하였습니다. 마음을 놓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자리에 들어서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자리에 모시자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평강과 은혜와 자비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적군을 향해 무방비의 성가대를 앞세우고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사야는 선민들이 하나님을 처음자리에 모셨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앞서 보았던 28장에서도 앗수르가 당할 심판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은 선민들이 앗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들은 앗수르를 마음의 처음자리에 들여놓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참된 마음가짐과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써 선민들은 하나님 곁에 붙어있을 수 있었다면 앗수르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러한 앗수르를 마음의 처음자리에 놓음으로 인해서 느낄 필요가 없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낱 겨로 여겨지는 앗수르인데, 선민들은 그 겨와 같은 앗수르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느낌으로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처음자리에 돈 문제가 들어섰습니다. 이 돈 문제는 마음에 절망을 줍니다. 이제는 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돈 문제가 너를 망하게 할 정도로 굉장한 것이냐? 내 눈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너는 그로인해 망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돈을 마음의 처음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자리에 모셨다면 돈 문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을 하는 동안 돈 문제와 나의 마음은 더욱더 밀착되어 지고 돈 문제가 주는 절망감은 더 강해집니다. 그 느낌이 더욱 강해져서 '돈 문제 때문에 나는 기어코 죽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처음자리에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가 주는 느낌에 온 마음이 짓눌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 자체의 무게에 눌려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주는 느낌을 과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눌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주는 느낌을 주관적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처음자리에 문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생겨난 느낌은 결코 참이 아닙니다. 모두 거짓된 것입니다.

상번제의 생활화 즉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처음자리에 오십니다.
이때에 앗수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돈 문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서 마음의 처음자리에 들여놓았을 때에 이것들이 주는 느낌은 과도하게 나를 압박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뿐이지 마음의 처음자리에 세상을 들여놓은 것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에 여전히 돈 문제를 마음의 처음자리에 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다 마음이 짓눌려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진행되는 상번제를 통해 이러한 마음을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번제단의 역할을 합니다. 내게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의 느낌을 주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마음의 처음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온전히 하늘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을 처음자리에 모실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처음자리에 들여놓은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주는 부정적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고, 패역한 자식으

로써의 행동입니다.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한 악한 자식으로서의 행동입니다.
이제 마음의 처음자리에 세상을 들여놓음으로써 짓눌린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돈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문제, 자녀문제, 나라문제 등을 내가 손을 써서 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마음의 처음자리에 들어온 상태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처음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십자가를 붙잡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처음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앗수르가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던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처음자리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쁨과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난 대상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으로서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민의 복음적인 복지의 삶입니다.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죽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처음자리에 들어온 세상이 주는 느낌대로 살지 않고 이 마음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처음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싸울 때에 문제는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과 참이 언제나 하나 되어 내게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